

제주 농촌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위한 회상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일 적용 연구

양문생¹, 박정환², 류향란^{2*}

¹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²제주대학교 교육학과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 reminiscence-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elderly's sense of self-integration in Jeju rural areas

Moon-Saeng Yang¹, Jung-Hwan Park², Xiang-Lan Liu^{2*}

¹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²Je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회상기반의 집단상담 경험에 대한 일 연구이다. 제주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 8명을 대상으로 제주 노인의 특성과 삶의 만족도는 어떠하며,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의미와 프로그램 종료 후 노인의 삶의 태도 변화는 어떠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4회기 회상기반 집단상담을 진행하였고 참여관찰과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제주 노인의 삶의 태도와 생활양식은 자아통합감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삶의 만족 수준도 높았다. 또한 집단상담을 통해 노인의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해소하고 과거와 현재의 삶을 수용하여 남은 인생을 계획해 보면서 삶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들의 자아통합감 증진에 프로그램이 기여했다는 증거이고, 향후 제주 노인들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갖추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대상의 확대, 다양한 연령집단에 적용, 프로그램 회기 수의 확대를 후속연구로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reminiscence-based group counseling to improve the sense of self-integration of the elderly. We targeted eight seniors over 75 years of age living in the rural areas of Jeju to underst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the program experience, and changes in their attitude towards life after the program ended. Four sessions of reminiscence-based group counseling were conducted,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terview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showed that the attitude of the elderly towards life and lifestyl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achieving a sense of self-integration, and their level of life satisfaction was high. In addition, through group counseling, the elderly were able to relieve their sense of isolation and depression, accept their past and present lives, plan the rest of their lives, and recognize the value of life. These research results are evidence that the program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sense of self-integration among the elderly. The results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establish a counseling and society-wide system to improve the sense of self-integration among the elderly in Jeju in the future. Expansion of the number of research subjects, evaluation of the application of reminiscence-based group counseling to various age groups, and expansion of the number of program sessions are suggested as follow-up studies.

Keywords : Jeju, Elderly, Sense of Self Integration, Reminiscence, Group Counseling

*Corresponding Author : Xiang-Lan Liu(Jeju National Univ., Department of Education)

email: hl7@jejunu.ac.kr

Received March 4, 2024

Accepted April 5, 2024

Revised March 25, 2024

Published April 30, 2024

1. 서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2026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20.8%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2037년에는 30.1%, 2060년에는 40.1%로 노인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 이러한 노인 인구 증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2,3]. 이에 따라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노년기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역할 축소, 심리적 문제로 인한 우울, 소외감, 죽음에 대한 공포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4]. 특히 한국의 우울증과 자살률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5]는데 통계청[1]에 의하면 노인층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70대 37.8명, 80대 60.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노인 정신건강에 대한 선행연구[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0세 이상 노인 중 약 80% 이상이 자살충동을 느낀적 있고, 그 중 72%가 노인성 우울 증세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노인은 자신에 대한 무가치한 평가, 삶의 에너지 상실, 공허감, 분노, 수치심, 죄책감, 무력감 등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우울 경향이 높아진다[7]. 이는 신체적 건강과 심리정서적 건강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노인복지기관 프로그램은 취미활동과 오락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다[8,9]. 특히 노인상담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로, 노인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과 심리사회적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부족과 이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노년기의 부정적 정서와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새로운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노년기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리사회적 적응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개념으로 Erikson[10]의 자아통합감을 들 수 있다. 자아통합감이란 인간의 모든 갈등이 조화롭게 통일되며 성숙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10]으로 정의된다.

노인들은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며 절망과 안락감을 경험하며 과거를 재평가하고 현재를 수용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참 지혜를 얻게 된다[11]. 따라서 길어진 노년기를 가치롭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현재에 대한 수용을 통하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노인을 위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외와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도 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과 우울 감소를 목적으로 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서 회상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12-16]. 김수영[17]의 연구에 의하면, 특히 집단회상은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과거를 재통합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회상기법을 활용한 자아통합감 증진의 연구 및 프로그램은 많지만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질적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장수지역이면서 독특한 문화와 자연환경, 역사적 상흔이 존재하는 제주 사회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아통합감 증진의 질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 농촌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회상기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자아통합감의 변화를 분석하는 질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주지역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18.1%로 이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중 90세 이상 노인비율이 4.4%로 전국에서 제주가 가장 높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시 13개 읍면동, 서귀포시 12개 읍면동은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상태이다[18]. 이러한 고령화 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은 제주 사회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과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의 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연구는 노인 개인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사회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제주 노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4.3사건으로 인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으며, 생활양식 속에 집단적 무의식의 실체로 남아있을 것이다[19]. 특히 70대 중후반 노인들의 자아표현, 과거 삶에 대한 인식, 자기가치감,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노인들의 삶을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한 결과[20]

를 살펴보면 제주의 남성 노인들은 자립적이며,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정도가 높고 노후에 자녀들과 별거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21]. 이러한 제주의 가족문화는 상호독립적 생활과 부양체계를 갖추고 있고, 성비의 불균형과 가족구조의 변화는 척박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사건들로부터 비롯되었다[22]. 또한 남성의 부재로 여성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계를 유지해 왔던 제주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23]. 이처럼 제주 노인들은 가족을 위해 희생적으로 살아온 세대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24].

이러한 역사, 사회, 문화적 배경속에서 삶을 이어온 제주 노인들의 특성에 맞게 본 연구는 제주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아통합감을 증진시키는 회상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주관적 경험과 의미를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 상담 복지현장에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후속 연구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농촌 노인의 특성과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아통합감을 위한 회상기반의 집단 상담프로그램 경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셋째, 프로그램 경험으로 인해 노인들의 변화된 생각과 그에 따른 심리 정서적 변화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제주도 대정읍에 소재한 S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방집단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면접 및 관찰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상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8회기로 구성하였으나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4회기로 단축 실행하여 자기 탐색과 자아통합의 과정이 다소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노인들은 이남인[25]이 제시한 현상학과 질적연구 참여자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연구될 현상을 직접 경험하였으며, 이를 해당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면접과 관찰 과정에서 녹음, 녹화에 동의하

였고, 서명을 통해 자신의 사례를 연구와 교육목적으로 허락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노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Age	Gender	Health condition	Presence or absence of spouse	Cohabitants	Whether there is economic activity
A	84	Female	Good	Existence	Spouse	Nothing
B	79	Male	Good (hearing loss)	Nothing	Son, grandson	Nothing
C	89	Female	Good	Existence	Spouse	Nothing
D	83	Female	Good	Nothing	Son Inside and outside	Nothing
E	72	Female	Good	Existence	Spouse	Farming
F	92	Female	Good (hearing loss)	Nothing	Living alone	Nothing
G	77	Female	Difficulty moving	Existence	Spouse	Farming
H	75	Male	Good	Existence	Spouse	Farming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 의사를 확인한 후, 녹음과 녹화 등의 사용을 연구 목적 이외에 하지 않을 것과 사용후 폐기할 것을 약속하고, 부담감이 생기면 중지 가능하다는 권리와 신상 비밀보장을 구두로 설명하고 확인하였다.

2.2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5년이상 경력 상담사 6명과 석사이상 학력을 가진 노인상담 전문가, 프로그램 개발경력 27년 이상 전문가, 교육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개발되었으며, 회상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원예치료, 푸드테라피, 과거 회상을 위한 사진 등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이 소속된 제주 노인심리상담 연구회는 2023년 11월 경 제주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 공모에 본 회상기반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응모하였고 이에 선정되어 실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4회기로 구성되었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만남의 기쁨"을 주제로 프로그램의 이해, 신뢰감 형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주목적으로 하였고, 중기 단계에서는 "내 마음속의 추억", "나의 작은 세상"이라는 각각 주제로 2회 진행하였다. 각 회기마다 지나온 삶, 긍정 회상, 내면속의 나 찾기, 의미 있는 삶의 태도 형성, 사고력 확장, 가족관계 탐색, 생명사랑정신 증진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종결 단계에서는 "살아온 세월, 살아갈 세월"이라는 주제로 자아발견과 미래의 삶 조망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았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먼저 제주 노인심리 상담연구회에서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노인상담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설계에 따른 선행 연구 조사 및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조사를 하였다. 2단계로 제주 노인심리 상담연구회에 소속된 상담 경력 5년 이상의 석, 박사 6인과 함께 노인의 자아통합을 위한 회상기반의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3단계로 2023년 12월 경에 농촌지역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2024년 1월 6일부터 1월 27일까지 4회기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1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프로그램 참가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아통합감 관련 사전 설문조사를 공동 연구자 및 보조진행요원들과 함께 1대1로 진행하였다. 노인이 직접 읽고 작성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사자가 읽으면서 답을 듣고 표시한 경우가 많았고 이때 간단한 면담을 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4회기 동안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4단계로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고 5단계로 면담과 관찰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6단계는 연구결과 도출 및 논문작성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2.4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4회기 회상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은 주1회 80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실행전 15분 이내의 시간을 소요하여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의 수집 기간은 2월1일부터 3월3일까지였다. 사전에 구성된 개방질문 문항으로, 질적분석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 관찰을 통해 참여자의 반응과 프로그램의 결과물, 녹음파일, 현장노트, 관찰 임상일지 등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처리는 Colaizzi[26]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첫째, 수집된 연구자료를 정독하면서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한다. 둘째, 참여자의 기술내용 중 의미있는 구와 문장을 발췌한다. 셋째, 의미있는 진술을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하는데 구성된 의미가 참여자 그대로의 의미로 반영되도록 원자료를 읽으면서 현상학적 반성을 거듭한다. 넷째, 의미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는 주제(themes), 주제묶음(theme clusters)으로 범주화한다. 다섯째,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들을 현상과 관련지어서 총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술한다. 여섯째,

지금까지의 단계에서 확인된 현상들의 공통점을 통합하여 기술한다. 일곱째, 연구자가 형성한 기술들이 참여자의 처음의 경험을 나타내는 것인지 확인함으로써 타당성을 얻는다[27].

3. 연구 결과

3.1 사전 면담 및 일화기록 자료 분석

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회상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대한 주제는 10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다시 <제주 농촌노인의 생활양식 및 삶의 태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 <프로그램 경험으로 인한 자기이해>, <가족의 관계 회상>, <과거와 현재의 삶 수용> 등 5개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 하였다.

연구결과 분석표는 <표 2>와 같다.

Table 2. Research results analysis table

Main subject	Meaning and restatement
Lifestyle and attitude toward life of Jeju rural seniors	The value of life sacrificed for children
	Pride in independent living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	Relieve emotional tension, stimulate interest(Eliminate emotional tension and stimulate interest?)
	Achievement(Sense of achievement?)
Self-understanding	Expose yourself. Empathy and emotional connection
	Understanding of others and perception of universality
Recollection of family relationships	Gratitude and longing for my wife
	Affection for grandchildren
Accepting life past and present	A positive sense of self-worth and self-integration after overcoming a difficult past.
	A plan for the years you will live

3.1.1 제주 농촌노인의 생활양식과 삶의 태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부분은 80대 중반으로, 그 이하 연령군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잠깐 오거나, 농사일을 쉬는 날에 참여하면서 높은 연령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제주 노인들은 가족의 삶을 중요시 여기며 희생하여 살아왔지만, 결혼한 자녀와는 상호독립적인 주거와 생활체계를 갖고 있었다. 이는 서정조[23]와 방경자[24]가 말한 제주 노인의 특성과 일치한다. 또한 제주 노인들은 자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며, 자녀에 대한

욕심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주 노인의 생활양식과 삶의 태도는 신체적 기능 저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심리과정으로 자아통합감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1.1.1 자식을 위해 희생한 삶에 대한 가치

나는 젊었을 때 너무 많은 고생을 해수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자식들은 나 같이 고생하명 살지 말고 편안히 살게 하려고 돈을 모아서 큰아들한테는 식당을 차려주고 작은 아들한테는 밭과 돈을 많이 물려주어수다. 그 돈으로 작은 아들은 하우스를 한 오천평 행수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건 나의 큰 보람이고 가장 잘한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난 그런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서 따로 내 노후에 쓸 만큼은 따로 챙겨 두어수다. 자식들이 나안티 따로 용돈을 챙겨주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고맙지.(B노인)

3.1.1.2 독립적인 삶에 대한 자부심

난 30대 때 남편을 여의고 어린 자식들을 다 키웠어. <중략> 아들 딸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냈어.이만하면 잘 산거 아니려? 가끔 연락이 오면 반갑고 잘 사는지 보면 그게 보람이주. 자식들이 용돈주면 고맙지만은 용돈같은 건 바라지 않아마썸. 지들끼리 잘살면 되었주.(F노인)
난 내삶이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무사나 하민 자식들 다 키워서 결혼시키고 자식들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우리 부부는 남에게 빌려준 밭의 임대료와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만하면 그런대로 살 수 있으니 내 삶은 그러저럭 만족해. 자식들 그저 건강하게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해. 고생해서 키우는건 부모의 도리이고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으니 자식들도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면 되는거지. 자식들 안테 의지하명 살면 안되어. 우리가 먹고 살 건은 따로 마련해아주(A노인) (이 말씀에 듣고 있던 주변의 노인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동의하며 공감함)

3.1.2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

매 회기 프로그램 초반에 워밍업으로 노인들이 좋아하는 음악, 건강박수, 간단한 게임 및 율동을 포함하여 정서적 긴장감 해소와 활동 동기 부여에 효과적인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신뢰감 형성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고, 활동의 성취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킬수 있었다.

3.1.2.1 정서적 긴장감 해소, 흥미유발

노래부르고 박수치고 하니가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아마썸. 기분도 좋아지고 재미이수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고 안 좋은 생각만 날건디. 이추록 여기 와그네 게임도 하나가 어린시절로 돌아간거 고추록 좋수다.(C노인)
난 글을 쓸줄도 모르고 읽을줄도 몰라서 여기오민 그러거나 쓰라고 해카브텐 걱정되고 호썰 두려워신디 게임도 하고 박수도 치니까 너무 좋은게 마썸. 재미이서.(A노인)

3.1.2.2 성취감

나 어릴적에는 이런 그리기 도구, 만들기 도구가 어썸주. 이제와 이런거 만드니 어릴적으로 돌아간 것 같고 내가 만든 것을 보니 좋네 좋아.(D노인)
내가 만든 화분을 집에 가져가니까 집에 온 며느리도 좋아하고 손자도 좋아해. 우리 손자 생각하며 정성껏 잘 키우고 이수다.(E노인)

3.1.3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한 자기이해

2회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사진을 활용한 과거 회상활동과 개인 액자 만들기를 통해 참여자들 간의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고립감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신뢰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노출을 증진시켜 자기이해와 타인 이해를 깊게 했다. 또한 타인의 과거 경험을 듣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려움이 보편적인 것임을 인식하게 되어,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다.

집단 참여자들은 초기에 부정적인 과거에 대한 자기노출을 꺼려했다. 이는 4.3사건의 영향으로 집단적 무의식에 남아있는 “나서는 놀이 망한다”는 관념[27]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아래,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부정적인 감정 표출을 주저했다. 그러나 회기가 거듭되면서 점차 자기 노출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 회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공감, 지지, 격려가 이루어지며 집단의 유대감과 응집력이 증진되었다.

3.1.3.1 자기노출, 공감, 정서적 유대감 증진

H노인은 첫회기 집단상담 시 “부정적인 이야기는 뭐하러 하나. 좋은 이야기만 하지”(봉나무) 라고 하였고 3, 4회기까지도 G노인은 “부정적인 과거는 뭐하러 이야기 해”라며 밝게 웃다가도 어두운 과거 경험에 대한 회상에서는 얼굴 빛이 굳어지고 어두워졌다. 이외 동백꽃님과 D노인(봉나무님)도 “안 좋은 일들은 말 할 필요 없어. 말하면 자식들이 안 좋아져. 마음에 담아두고 무덤속까지 갖고 가야지”. 과거 자신의 사진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 봉나무님은 “나를 여행다녀온 즐거운 경험을 이야기 하는데 난 한번도 여행을 다녀온 경험도 없고 어릴때부터 가난해서 내 삶이 너무도 허망하고 억울해” 라는 말씀을 하였고 이에 동백꽃님과 D노인이 “우리 동네에서 다같이 마농축제 때 육지 여행 갔다왔잖아. 그때 우리가 봉나무님 흔레도 치루고 얼마나 재미있었는데”하며 웃자 봉나무님이 기억을 떠올리며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그때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봉나무님은 자신의 삶 속이 모두 부정적인 것들로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 좋은 날도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3.1.3.2 타인에 대한 이해와 보편성 지각

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주마는 참나무님은 정말 힘들어수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자녀들을 혼자 고생하며 키우젠 허난 얼마 나 힘들어수과? 집에만 있으면 서로 만날일도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수다.(H노인)

나만 고생허며 살아신줄 알아신디 저 어른은 더 고생해신게. 그뎨 다 어려울때난 고생 안한 사람은 없जू제 (D노인)

3.1.4 가족관계 회상

3회기는 노인들이 원예치료 활동을 통해 자신의 과거 삶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탐색해 보았다. 대부분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상하며 고마움과 그리움, 애뜻함을 표현하였다.

3.1.4.1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

자신이 만든 화분에 제목을 <순자꽃> 이라고 써서 달아놓고 "둘이 가진 아내를 생각하며 만들었는데 함께 사는 동안 모든 것이 다 좋았어. 그때가 그림과 아내가 그림네"라고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후 소감은 웃으면서 "아내를 생각하며 잘 키우겠다" 라고 하였다.(B노인)

자신이 만든 화분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이름을 따서 <봉선이> 이라고 제목을 써서 붙여 놓고 고양이가 화분을 엮질러 놓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아내가 감기에 걸려 못나왔는데 일론 낳아서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후 소감으로는 참여자 모두에게 "다들 오늘 만든 화분을 잘 키워서 10개씩 불러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자" 라고 하였다. (H노인)

3.1.4.2 손, 자녀에 대한 애뜻함

손자녀, 자식들이 나의 건강을 걱정해서 고마운 마음도 들고 스스로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수다. 이후록 가족들 생각도 해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화분도 만드니 정말 좋수다.(C노인)

어린 손자 생각이 나네요. 할머니 걱정도 해주고 가끔 영상통화로 안부도 묻고 같이 여행도 다녀주마씀. 우리 손자 키우듯이 잘 키우쿠다. 고맙수다.(E노인)

3.1.5 과거와 현재의 삶 수용

4회기 프로그램에서는 살아온 세월에 대한 과거 연대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앞으로 살아갈 세월에 대한 계획을 꼴라주 미술매체를 통해 표현했다. 첫 회기에는 서로 눈치를 보며 자기노출을 꺼려하였던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신의 살아온 과정을 스스로 없이 이야기를 하였다. 대부분 힘든 삶을 이겨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서로 지지와 격려를 통해 긍정적인 가치감을 갖게 되었고 과거의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 모두 자신의 삶의 일부였음을 인식하고 통합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1.5.1 힘들었던 과거를 잘 이겨낸 긍정적 자기가치감 및 자아통합감

고생을 최고로 했는데 돈은 못벌었어.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커서 감사하고 행복해.(D노인)

20대때 결혼하고 30대때 집사고 60대때 밭 만평 사수다. 무일푼으로 시작해서난 고생은 말도 못하지. 그후록 모아 놓은 재산을 어느정도 팔고 아들 식당해주고 작은 아들은 하우스 지어주고 결혼도 다 시켜서 이젠 내 할 일은 다 한거 아니라? 이만큼 살면 됐지 뭐. (B노인)

(소리 없이 밝게 웃으시며) 과거는 너무 힘들어서 말할 나위가 어서. 그래도 이렇게 자식들 잘 키워서 잘 살고 손주도 전화와서 안부도 물어주고 하니 지금이 제일 행복해.(F노인)

난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것이 딱 하나 이서. 뭐냐하면 공부를 못한건데. 사실은 부모님이 안 시켜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서 못한 거주. 그래서 누굴 원망하지도 못해. 그게 제일 후회되는데... 다른건 걱정되거나 힘든건 어수다. 자식도 잘 컸고 할아방도 잘해주고 건강하고. 이만하면 만족해여마음. (A노인)

결혼해서 남편과 일본에 갔는데 남편을 두고 나 혼자 제주에 와신디 임신 한거라게. 게난 동네 사람들로부터 바람피웠다고 오해를 받아서 정말 힘들어수다. 그래도 그럭저럭 참고 살다보니 오해도 풀고 둘째도 낳고 잘 키워서 그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높은 직책의 연구원으로 다니고 이수다. 안 좋은 일도 있었주만은 살다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고 지금은 너무 행복허우다. (E노인)

3.1.5.2 살아갈 세월에 대한 계획

남은 세월은 하르방이영 맞난거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살고 싶어마씀. 경하고 공부 못한게 후회스러워서 지금이라도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우우다.(A노인)

다리가 아프기는 하지만 등산도 하고 꽃도 가꾸면서 건강도 챙기명 살고 싶우우다.(G노인)

지금까지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백두산을 못가봐수다. 백두산을 꼭 가보고 싶네.그렇러면 운동도 하고 건강을 챙겨야부다 (B노인)

난 지금껏 젊어서부터 사회단체에서 회장직을 맡으며 평생 사회봉사활동이나 사회운동 등을 하면서 지금껏 살아와신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네요. 물론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지만... 이제는 아내와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건강한 음식도 잘 챙겨 먹으며 남은 여생을 여유롭고 보람있게 보내고 싶어요.(H 노인)

3.2 사후 면접 자료 분석

사후 면접은 프로그램 종료 3주 후에 방문하여, 구조화된 질문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시간은 1인당 10분이었으며, 주요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통합을 위한 회상기반 집단상담에 참여 소감과 느낀 의미는 어떠한가? 둘째,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후에 겪은 생각이나 심리적 변화, 특히 삶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셋째,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였으며, 그 경험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3.2.1 자아통합 회상 기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나에게 주는 의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그 자체가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데 좋은 경험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으로는 3회기 원예치료와 4회기 풀라주이다. 이는 직접 창작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몰입함으로써 우울감을 해소하고 표현력과 성취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과거 회상을 통해 의미있는 대상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긍정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 다른 사람들과 말 골랐던거하고 옛날 생각하명 나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니 어렵고 힘들어도 잘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에 나 자신이 뿌듯하기도 해서 좋아수다. (E노인)

· 이야기 나누다 보니 우리동네에 어려운 분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주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수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도 좋았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한데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어서 좋아수다(H노인)

· 배우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아수다(A노인)

·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수다. 남은 삶과 현재의 삶을 위하여 마음건강이 중요함을 알게 되어수다(B노인)

· 모든 활동이 좋았지. 서로 얼굴을 보며 화목해진 듯하였고 집에 있으면 심란하고 우울할텐데 여러 활동을 하니 즐거웠주게. 특히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용여리가 풀려지고 마음을 여는 것 같아 좋아수다. (D노인)

·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미래를 계획해보는 것이 즐거웠다. 오리고 붙이는 활동이 재미있었고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 좋았지. (E노인)

· 기존의 프로그램은 판에 얽힌 교육이라면 이번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마음속을 파고드는 이야기라서 그전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속이 못 했던 말들도 하게 되니 이웃과의 화합이 증진되고 특히 여자 어르신들이 아무말 하지 않고 답아두는 편인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좋아수다. (H노인)

·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를 만드는 활동을 해서 좋아수다.(F노인)

·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좋아수다.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고예. 활기가 있어 좋아수다. (E노인)

· 젊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점은 그들의 생각,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신지식, 휴대폰, 컴퓨터 기기 사용법 등 (H노인의말씀에 D노인, 그 외 어르신들이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점은 있다며 공감하심)이 이쁘게. 다음에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해도 좋을 거 답수다.(H노인)

· 게임도 하고 만들고 특히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다른 프로그램하고 다른 것 같아마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 답수다.(B노인)

4.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상실감이나 우울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회상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경험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 사후 면담과 참여관찰을 토대로 분석한 연구자료의 내용은 제주 농촌 노인의 생활양식 및 삶의 태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 및 자기이해, 가족관계 회상, 과거와 현재의 삶 수용,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주는 의미, 삶의 태도 변화 등이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주 노인의 특성과 삶의 만족도 수준을 보면 농촌의 노인들은 높은 연령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제주 특유의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격상 강인해질 수 밖에 없었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노력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며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성실함이 있다[19]는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성공과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며 보람이라고 느끼지만 자녀에게 과잉기대나 특별한 욕심이 없고 노년기에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특성이다. 이러한 제주 노인의 삶의 태도와 생활양식은 신체적 기능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회,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심리과정으로 자아통합감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 수준도 높다. 그러나 낮은 사람이나 환경을 경계하고 부정적인 과거 경험이나 자신의 속내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어 상담에서 신뢰관계를 형

3.2.2 삶의 태도 변화

프로그램 참여 후 심리정서적 변화나 삶의 태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다는 그 전과 다르게 인식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는 노인들은 “4회기 짧은 시간 동안의 프로그램으로는 그동안의 삶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라고 하였다.

· 예쁘고 밝게 살아야하겠다는 생각이 생겼수다(E노인)

·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던 것 같아주게(H노인)

· 4회기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변화는 없어.(A노인)

· 특별히 어수다. 프로그램을 더하면 몰라도... (D노인)

· 변화라고 할 것은 없고예 그때 했던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즐거웠던 기억에 다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수다.(B노인)

3.2.3 프로그램에 대한 나의 생각

S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복지 차원의 신체건강을 위한 체조, 안마 프로그램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반해 정서 강화나 사회관계 증진, 자아통합감 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으로 기존의 프로그램과 특성이 다른 본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하여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회상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 첫째, 프로그램 시작시 워밍업 게임, 율동, 건강박수 등은 참여자들에게 정서적 긴장감과 우울감을 해소하는 효과를 주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다. 이는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프로그램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고, 성취감을 증진시키며 자기가치감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홍유진[28]의 웃음카타르시스와 허경선[29]의 게임놀이기법에서 언급한 감정 정화와 긍정적 정서, 신뢰감 증진의 내용과도 일맥상통 한다.

둘째, 지지적인 집단 분위기에서 진행된 사진 작업과 원예활동을 매개로 한 회상활동은 참여자들에게 삶을 재정의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수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보편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집단원들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신감과 심리적인 안녕감을 증진시켰다. 이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데 있어, 집단원들의 공감과 지지가 중요하다는 김수영[17], 여인숙[30]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감과 고립감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프로그램 경험으로 인해 노인들의 변화된 생각과 그에 따른 심리 정서적 변화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 모두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인식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남은 삶을 잘 살아야겠다는 의식을 갖게 되며, 삶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Erikson[10]이 정의한 자아통합감과 관련이 있으며, 노년기의 심리적 안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었다. 자아통합감은 과거 삶에 대한 만족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만이 아니라 노년기에 경험하는 후회와 절망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자아통합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회상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자아통합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4회기 짧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집단상담의

발달과정을 충분히 다루지 못함으로 인해 깊이 있는 자기탐색과 자아통합의 과정이 다소 부족하였다. 이는 실제 참여자들이 짧은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을 만큼 프로그램 실행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성도 보다 증진이 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제주 농촌 S마을 경로당을 이용하는 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연구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모든 노인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제주 노인의 특성 및 자아통합감 증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만 이루어진 연구로, 좀 더 객관적이고 심층적 연구를 위해 제주노인 특성에 맞는 자아통합감 척도를 활용하여 질적연구와 양적연구가 병행된 통합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7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노인의 변화 양상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아통합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연구함으로써 고령화 정책 수립이나 학문적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References

- [1] www.kosis.kr, 2022.
- [2] I. C. Oh, A study on the retirement pathway decisions and self-efficacy: Focused on the motivation to obtain a Landscape Architect license, Doctoral degree,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cological Engineering, Environmental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2024.
- [3] S. H. Kim, Research on the Process of Building Problem-Solving Governance in Local Community : Case Study on 'Gangbuk-gu Climate Crisis Action' Graduate school for social innovation business Hanshin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23.
- [4] Y. S. Kim,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welfare budget for the aged,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Administration, Doctoral thesis, 2003. <https://dcol.dongguk.edu/srch/srchDetail/000000005647>
- [5] H. S. Kim, S. H. Mo, K. Y. Yoon, Y. K. Jeong, D. S. Kim; Seoul: hakjisa,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2023.

- [6] H. J. Shu, Social work intervention strategies for preventing suicide in the elderly : with special reference to factors affecting on elderly suicide, P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ctoral Thesis, 2005.
- [7] J. O. Kim, The Study of Reminiscence- Oriented Group Art Therapy Affecting Elderly Depression : Focused on Ego-Integrity and Behavioral Changes, 2011.
- [8] G. O. Lee, "Quality of Life in Old Age: Concept and Indicator Composition," 6th Academic Seminar commemorating the International Day of the Elderly, Sungkonghoe University, 2000.
- [9] G. Y. Jun, H. A. Song, S. J. Go, I. M. Kim,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of Preparing for Successful Aging, Korean Society of Gerontology Vol. 20, No. 1, pp. 69-91, 2000.
- [10] Erickson. E. H, The life cycle completed : Areview, New York : Norton, 1997.
- [11] H. S. Lee, Hakjisa, Elderly Counseling, 2012.
- [12] LB. Taf & MF. Nehrke, Reminiscence, life review, and ego integrity in nursing home resi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0(3), 189-196, 1990.
- [13] Taylor-Price, The efficacy of structured reminiscence group psychotherapy as an intervention to decrease depression and increase psychological well-being in female nursing home residents.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95.
- [14] M. Y. Eom, Operation and evaluation of reminiscence group for elderly people with strok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 21-35, 2000.
- [15] S. Y. Kim, Effects of recollection with mugwort fragrance inhalation on pain, depression and ego integrity of the elderly with chronic pai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2001.
- [16] A.G.L. Kim,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the theme of reminiscence on the self-esteem and sense of self-integration of the elderl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Environment, Wonkwang University, 2003.
- [17] S.Y. Kim, Effects of group reminiscence therapy on pain,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the elderly - targeting elderly women with chronic pain in nursing hom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8.
- [18] <https://jumin.mois.go.kr>, 2024.2
- [19] H. S. Kim, G. E. Kang, Study on perspectives of successful aging for the elderly in Jeju island.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9, pp. 159-186, 2013.
- [20] J. Y. Kim, Jeju long-lived elderly population status and daily living performance. Jeju Society Journal Vol, 23, Jeju Society, 2002.
- [21] M. H. Kim, Elderly welfare plan suitable for Jeju customs, Journa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2, 47-88, 1992.
- [22] H. S. Kim, A Drug Use and the Related Factors of the Elderly Persons in a Gwang ju Area, Korean Health Association, Korean Health Research, Volume 27, No. 1, 69-79, 2002.
- [23] J. J. Seo, A Study on the Life Quality of the Old Residing in Jeju-do. Major of Counsel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2006.
- [24] K. J. Bang, A study on the traditional fairy tale program development geared toward alleviating elderly people's sense of helplessness and an analysis of its effects. Counsel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5.
- [25] N. I. Lee,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 A Horizon of Applied Phenomenology, Paju: Hangilsa Temple, 24.
- [26] Colaizzi, P. F,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S. and Mark, K,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48-71, 1978.
- [27] C. H. Oh, Y. H. Park, J. H. Park, A Study of Elderly Psychological Counseling Vision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5, No.2, pp.522-530, 202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4.25.2.522>
- [28] Y. J. Hong, INTEGRATIVE ARTS THERAPY. seoul. hagiisa, 2018.
- [29] J. S. Heo,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ntegrative Arts Therapy Program to Improve Brain Plasticity for the Intellectual Disability. Major: Integrative Arts Therapy, 2018.
- [30] I. S. Yeo,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Reminiscence-Narrative Group Therapy program to increase Ego-Integrity in the Elderly. Department of Child & Family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5.

양 문 생(Moon-Saeng Yang)

[정회원]



- 2008년 2월 : 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청소년 교육전공
- 2021년 6월 : 제주대학교 교육학
과 상담심리석사
- 2017년 2월 ~ 2020년 5월 : 제주
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 2023년 4월 ~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관심분야>

유아교육, 부모교육 및 상담, 청소년 상담, 노인 상담

박 정 환(Jung-Hwan Park)

[중신회원]



- 1992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
과(문학사)
- 1994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
과(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방법, 교육공학, Smart-Education, 상담공학

류 향 란(Xiang-Lan Liu)

[정회원]



- 2006년 8월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 석사)
- 2023년 12월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수료)

<관심분야>

교육공학 및 교육방법, 미래교육, 창의교육, 진로코칭, AI상담과 노인교육